

마르톤(E. de Martonne)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 연구¹⁾

정 광 중*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생애와 경력에 대하여
3. 학문적인 사상과 업적에 대하여
 - 3-1. 학문적 사상의 형성
 - 3-2. 학문적 업적과 평가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마르톤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지리학파인 비달리안 학파의 한사람으로서 브뤼느(J. Brunhes), 드망중(A. Demangeon), 갈루아(L. Gallois) 등과 함께 20C의 프랑스 지리학계를 이끈 학자이다²⁾. 그가 주로 몰두한 학문적 분야는 자연지리학이었지만, 지리학에도 탁월한 지식과 방법론을 습득하고 있었다. 마르톤의 학문적 사상은 그의 장인인 블라슈(Vidal de la Blache)와 미국의 데이비스(W. M. Davis)로부터 영향을 받았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1) 이 논문은 정광중, 2003, 「마르톤, 프랑스 자연지리학의 대가」, pp. 50~61(『지리학을 빛낸 24인의 거장들』, 한울아카데미)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이회연, 1991, 『지리학사』법문사, pp.228~229.

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독자적인 연구방법과 영역의 개척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마르톤의 학문적 사상이나 업적은 극히 단편적인 내용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여기서는 마르톤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 및 사상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특히 마르톤은 지형학, 기후학 등 자연지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인 만큼, 그의 자연지리학에 대한 학문적 사상이나 식견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배경은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생애와 경력에 대하여

마르톤은 1873년에 파리 남부의 안드로(Indre) 주 사브리(Salbris)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인 사브리는 파리 남부에서도 동부 산지로부터 비스케만으로 유입되는 루아르강(Loire River)의 지류인 셰르강(Cher River) 연변에 위치한다. 사브리는 비록 작은 지방도시이기는 하지만, 주변 경승지가 뛰어난 곳이었다. 사브리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파리분지에서 중앙산지의 접이지대에 해당되지만, 인문경관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프랑스 서부의 색채가 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마르톤의 가계는 브르타뉴(Bretagne)의 덕망 있는 명문가로서, 그 자신의 이름에서도 귀족출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블라슈의 사위라는 친분관계에서도 귀족출신의 학자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사브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파리로 건너가 1892년에 에콜 노말 수페루르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마르톤은 바로 이 대학에서 블라슈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블라슈의 강의에 심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르톤은 블라슈를 접한 이후 본격적으로 지리학의 학문세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의 학문적 영향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 마르톤은 대학과정에서는 지리학보다도 오히려 역사학 관련 강좌에 심혈을 기울여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점은 스승인 블라슈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적

3) 한국에서 마르톤에 대한 소개는 이희연(1991, 『전계서』, pp.231~233)의 저서 이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분위기가 사학이 주류가 되어 지리학을 이끌던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라 할 수 있다.

1895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마르톤은 지리학과 역사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2개 교과에 대한 교수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후 1902년에는 루마니아의 왈라키아(Walachia)⁴⁾에 관한 지지적 연구를 통해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07년에는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 알프스⁵⁾의 지형진화에 대한 연구로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⁶⁾.

마르톤은 대학을 졸업한 후 1898년부터 파리대학 자연지리학교실에서 기상학을 담당하며 강단에 서게 되었으며, 1년 후에는 고향의 대학인 렌즈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지리학을 강의하는 입장이 되었다. 렌즈대학은 마르톤의 취임과 더불어 지리학교실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따라서 그는 지리학 강의와 관련되는 제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열정을 다했다.

1905년에 마르톤은 리옹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지리학교실은 파리대학과 리옹대학에만 설치되어 있었을 정도로 지리학교실과 관련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대학으로 부임한 것이었다. 그는 리옹대학에서도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여 지도전시실, 모형실 및 도서실 등을 고루 갖춘 지리학연구소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리옹대학에 근무하면서도 마르톤은 앞서 제시한 두 개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정열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였다. 말하자면, 리옹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은 가장 왕성한 연구와 더불어 지리학교실 정비에 힘을 쏟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리옹대학에서 약 4년간을 지낸 마르톤은 1909년에 파리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36세로 한창 때였다. 파리대학에서 그는 은사인 블라슈가 사망할 때(1918년)까지 함께 근무하는 행운을 누렸으며, 동시에 후에 프랑스의 지리학계를 빛낸 또 하나의 거장 드망종(A. Demangeon: 1872~1940)과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좋은 환경에 있었다. 젊은 시절에 몇몇 대학을 걸치며 강의와 연구를 하던 마르톤은 1909년 이후부터 1944년 정년퇴임에 이르기까지의 약 35년간을 드망종과 함께 파리대학에서 보냈다.

마르톤은 경력도 상당히 다양하다. 먼저 그는 블라슈의 사후에 드망종과 함께 프랑

4)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산맥 이남에 전개되는 분지(왈라키아분지) 지역을 가리킨다.

5) 루마니아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위치하는 트란실바니아 산맥의 주변지역을 가리킨다.

6) 谷岡武雄, 1963, 「전계 논문」, p.68.

7) 谷岡武雄, 1963, 「전계 논문」, p.68.

스의 지리학계를 대표하는 파리대학의 지리학교실을 이끌었으며, 1906년 이후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학연합 단체를 조직함과 동시에 운영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마르톤은 1821년 이후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지리학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프랑스지리학자협회 회장직이나 프랑스 과학아카데미 회원 등도 그의 중요한 경력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31~1938년 사이에는 국제지리학연합(IGU,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의 총무를 지냈고, 1938~1949년 사이에는 동연합의 회장직을 지냈으며, 그로 인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는 명예도 안았다⁸⁾.

그 외의 학술적 또는 학문적 자문 분야에서도 그의 역량을 필요로 한 곳은 많았다. 그는 1922년에 블라슈의 유고를 편집하여 『인문지리학의 원리(Principles de Géographie Humaine)』를 간행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지리학 학술지인 『Annales de Géographie』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1923년에 프랑스 지리학회(AGF)를 발족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⁹⁾.

한편 마르톤은 지리학의 전체적인 발전은 물론, 파리대학 내에서 지리학분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23년에 지리학연구소도 개설하였다. 이것은 프랑스학파의 지리학계에서도 획기적인 일인 동시에 크게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파리대학 내에서 지리학연구소의 설치는 다른 학문분야에 밀려 거의 실현되지 못하던 일이었다. 5층 건물의 독립적인 연구소를 설치함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실은 물론 도서관, 지도실, 사진실과 암실, 제도실 등 지리학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구상과 실천은 마르톤이 렌즈대학과 리옹대학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항상 학구적이고 집요한 연구의욕을 지닌 성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 학문적인 사상과 업적에 대하여

3-1. 학문적 사상의 형성

마르톤의 학문적 사상을 형성하고 그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형성해 나가기까지는

8) ① 日本地誌研究所編, 1989, 『地理學辭典』, 二宮書店, p.641. ② 이희연, 1991, 『전개서』, p.232.

9) 谷岡武雄, 1963, 『전개 논문』, p.70.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좁히면, 우선은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 지리학이라는 학문적 분야로 이끌어 준 스승 블라슈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르톤의 주전공이 자연지리학이었기 때문에 인문지리학을 주도했던 스승 블라슈와는 비록 학문적 영역과 분야는 달랐지만, 처음에 지리학을 연구해 가는 과정에서는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적 지리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배경은 마르톤이 자연지리학 관련 연구 외에도 프랑스, 중앙유럽 및 알프스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물이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미 앞서 지적했듯이, 그의 문학박사 학위는 루마니아 왈라키아 분지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블라슈의 인문지리학적 연구성향을 많이 본받아 행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연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의 연구방향이나 학문적인 틀을 구축하는데는 미국의 데이비스(W. M. Davis: 1850~1934)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톤이 처음으로 지형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비스를 만난 것은 1904년에 열렸던 제8차 IGU회의에서였으며, 그 이후 마르톤은 데이비스의 지형연구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에 완전히 매료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마르톤이 데이비스 지형학의 영향을 받은 이후부터는 프랑스의 전체적인 지형연구에도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데이비스의 연구에서 획득한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여러 연구를 발표한 결과, 그의 강의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줄지어 기다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이다¹⁰⁾.

마르톤의 학문적 사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라슈와 데이비스에 틀림없으나 두 사람 외에도 마르톤은 많은 학자들을 접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영국의 지리학자들과 열심히 교류하는 한편 독일어의 참고문헌을 통해, 독일 지리학계와 자연지리학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틀과 연구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일신시켜 나감으로써, 항시 자신의 연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10) 谷岡武雄, 1963, 「전계 논문」, p.69.

마르톤에 대해 후세의 학자들은 그가 데이비스의 학문적 영향을 깊게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비스의 지형학과도 다르고 독일의 펑크(A. Penck: 1858~1945)의 지형학과도 다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지형학을 추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후지형학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독자적인 지형학 추구라고 하는 연구적 측면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¹¹⁾.

3-2. 학문적 업적과 평가

마르톤의 주요 연구분야는 지형학, 기후학, 육수학, 생물지리학 등을 폭넓게 다루는 자연지리학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자연지리학 분야 외에도 그의 저작물에서는 지역지리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마르톤의 학문적 업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지리적(地誌的) 연구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지리현상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연구성과이다. 우선, 이 두 분야의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저서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프랑스어로 된 원저서명과 출판도를 나타낸다).

○ 지역 지리학 관련 연구성과

- ① 프랑스의 지리구(Les Régions Géographiques de la France, 1921년)
- ② 중앙 유럽(L'Europe Centrale, 1930·1931년)
- ③ 알프스의 일반지리(Les Alpes, Géographie Generale, 1936년)

○ 자연지리학 관련 연구성과

- ① 자연지리학 개론(Traité de Géographie Physique, 1909년 초판, 1925~1927년에 수정판으로서 제4판이 3권으로 나누어 출판됨)¹³⁾
- ② 기상학(La Météologie 18, 1941년)
- ③ 프랑스의 자연지리(La France Physique, 1942년)

11) 町田 貞 他 編輯, 1981, 『地形學辭典』, 二宮書店, p.594.

12) 町田 貞 他 編輯, 1981, 『전개서』, p.594.

13) 이 『자연지리학개론』은 1927년에 영문판으로도 번역되어 영미권에 소개되었다. 영문판의 제목은 『A Shorter Physical Geography』이다.

마르톤은 이상의 저서를 포함하여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중에서는 내용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참신한 방법론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많다고 전해진다. 마르톤은 학문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지표의 형태나 조합관계는 각 장소의 다양성에 의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특정현상이 지표점거에 대한 이유를 밝혀 내는 것이 지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지표점거의 다양성은 결국 자연지리학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마르톤은 특정지역에 있어 지표현상의 형태나 조합에 대한 자연지리학적인 이유와 배경을 밝혀 내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여러 결과물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이 설정한 원칙과 함께 학문적인 끈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마르톤의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방법이다가 지질학, 생물학, 지구물리학 등 인접학문의 기본을 포함시켜 넓은 견지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¹⁴⁾.

앞에서 열거한 마르톤의 저서 중에서도 특히 『자연지리학 개론』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지닌 도서 중의 하나이며, 이 도서로 인해 마르톤의 명성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저서는 전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초의 발행은 마르톤이 리옹에서 파리로 돌아온 해에 이루어졌다. 그 후에 『자연지리학 개론』은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걸쳐 제7판까지 출판되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 도서는 자연지리학의 주요 영역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빙하 주변부의 계곡에 대한 이론, 열대지역에서의 사면지형의 진화, 건조지수, 지형진화를 결정짓는 기후인자, 지형진화와 하천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은 마르톤이 지리학계에 공헌한 중요한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비록 일부 내용이 백과사전 식이기는 하나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된 개론서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출판된 이후 한동안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표준적인 텍스트로 채택하여 사용했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⁶⁾.

마르톤의 연구지역은 국내인 프랑스를 포함하여 중앙 유럽의 알프스산지, 헬시니아 산지 중에서도 보헤미아 분지 및 모라바(체코) 구릉 및 남아메리카의 사막까지도 포

14) 日本地誌研究所編, 1984, 「전개서」, p.641.

15) 谷岡武雄, 1963, 「전개 논문」, p.69.

16) 谷岡武雄, 1963, 「전개 논문」, p.68.

함되었다. 마르톤은 조사과정에서 경관을 스케치하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며 수집하는 일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내에서는 대상지역의 지도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 다이어그램 등 각종 도표를 만들어 내는 수완도 매우 뛰어났다고 전해진다¹⁷⁾.

마르톤의 연구성과 중의 하나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기후구분과 건조지수(aridity index)의 개념이다. 마르톤의 기후구분(1909년에 처음 발표)은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아 아주 생소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후구분하면 통상적으로 마르톤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쾨펜(W. Köppen)의 기후구분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이다.

마르톤의 기후구분은 최초에는 연평균 기온, 연강수량, 그리고 월평균기온이 10°C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월수를 이용하고, 동시에 세 가지 지표의 한계치를 식물지리학적 관점에서 정한 후 총 9개의 주요 기후형으로 설정하였으나, 1925년에는 재수정하여 6개의 주요 기후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이것들은 ㉠ 열대기후 ㉡ 몬순기후 ㉢ 지중해식 기후 ㉣ 온대기후 ㉤ 사막기후 ㉥ 한대기후이다. 나아가, 이들 6개의 주요 기후형은 해안에서의 거리와 해발고도 등에 따라 총 26개의 소기후형으로 세분되는 것이 특징이다¹⁸⁾.

한편 마르톤이 고안해 낸 건조지수는 기후의 건조와 습윤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926년에 프랑스의 내부유역의 위도분포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착안한데서 사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연강수량을 Pmm, 연평균기온을 T°C라 할 때, 건조지수 I는 $I = P / (T + 10)$ 으로 나타나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I의 값이 5이하의 지역은 무하천지역으로 거의 사막에 가까우며, 5~10의 지역은 내륙유역(內陸流域), 10이상의 지역은 외양유역(外洋流域)과 거의 대응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I값이 10이상이면, 건조농업이 가능해지고 30정도에서는 삼림이 나타나며 20정도의 지역까지는 인공적인 관계가 행해진다고 하였다¹⁹⁾.

〈그림 1〉은 몬순 아시아 지역을 사례로 마르톤의 건조지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마르톤의 건조지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어 낼 수 있다. 건조지수는 미얀마의 내륙부에서는 30이하, 그리고 인도반도의 남부가 10이하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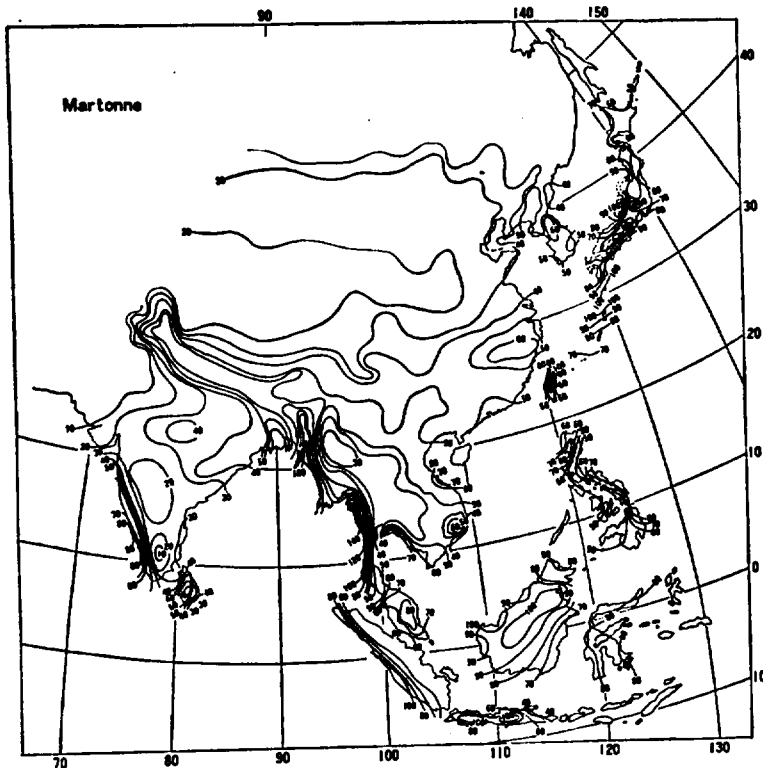
17) ① 谷岡武雄, 1963, 「전계 논문」, p.69. ② 이희연, 1991, 「전계서」, p.232.

18) 吉野正敏 他 編輯, 1985, 「氣候學·氣象學辭典」, 二宮書店, p.515.

19) ① 町田 貞 他 編輯, 1981, 「전계서」, p.120. ② 吉野正敏 他 編輯, 1985, 「전계서」, pp.93~94.

상당히 건조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얀마 남부의 안다만 해(Andaman sea)에 면한 지역에서는 140이라는 수치가 나타나며, 동시에 주변은 100이상인 습윤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내륙부에서는 20이하로 건조해 있으며, 한반도나 일본열도 등지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5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습윤지역임을 쉽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같이 마르톤의 건조지수는 상당히 국지적인 변화까지도 잘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²⁰⁾.

요약하자면, 마르톤의 건조지수는 단순히 기후지역을 구분하는 지표로서만 사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넓게 보면 세계전체를 통해 인류 생활환경의 적부 관계나 여러 지역별로 문화나 문명의 발전·쇠퇴 가능성도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는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1〉 몬순 아시아에 있어서 마르톤(Martonne) 건조지수의 분포 패턴(Kawamura, 1971)

(자료출처 : 吉野正敏, 1978, 『氣候學』, 大明堂, p.22.)

20) 吉野正敏, 1978, 『氣候學』, 大明堂, pp.22~23.

4. 나오면서

지금까지 프랑스 비달리안 학파의 한사람으로서 블라슈 사망 이후에 드망종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연지리학자 마르톤에 대하여 그의 생애와 경력, 학문적 사상과 업적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후세의 학자들이 마르톤을 평가할 때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자연지리학의 교조(敎祖)」라는 표현이다. 필자가 본고를 집필해 가는 과정에서 접한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할 때, 그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상세히 논의된 것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마르톤이 지리학연구와 관련해서 느끼는 학구적인 책임감과 정열적인 태도에 있었다고 본다. 대학시절부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연구풍토를 제대로 숙지하여 역사와 지리를 동시에 수강하며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은 처음 단계에서 블라슈의 영향을 받았다는 배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마르톤 자신이 일찍부터 학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진취적이고 확고한 태도는 대학 강단에 서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렌즈대학의 지리학과와 설치, 리옹대학에서의 지리학연구소 창설, 파리대학에서의 지리학연구소의 개설 등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추진력과 함께 지리학연구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소명의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은 그의 스승인 블라슈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말하자면 프랑스 지리학계의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나름대로 독창적인 연구방법의 습득과 꾸준한 개선으로 항상 자기 발전적인 학문의 기틀을 쌓았다고 하는 점이다. 마르톤은 특히, 자연지리학 분야 중에서도 특정분야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형학, 기후학, 생물지리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지리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여러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나아가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인 기초지식을 평소부터 철저히 쌓아야 함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은 후세들에게 지리학을 세분화시켜 연구해 나가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묵시론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특히, 오늘날의 세분화된 지리학계의 동향과 연관시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지리적 사고라 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지리학연구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마르톤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오면서도, 왜 여태까지 이 학자가 한국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스승인 블라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